

광주·전남 수출유망 중소기업 49곳 집중 지원

중기청 등 14개 기관, 광주29곳·전남 20곳 2년간 지원 등 혜택 수출지원협 '찾아가는 합동 설명회' 개최...역량 강화 상담 진행도

광주지역 바이오헬스케어기업 ㈜메종 등 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 49개사가 중소벤처기업청 등 수출유망기관의 집중 지원을 받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세관, 코트라, 무역협회 등 14개 수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협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49개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은 수출실적은 500만달러 미만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기업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메종, 에이

치디티㈜, 한국프라임제약㈜, 고려오토론㈜ 등 광주지역 29개사와 ㈜지분코스메틱, ㈜마루, ㈜센테크 등 전남지역 20개사 등 총 49개사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자금, 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 수수료를 할인 받고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또 20개 수출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수출지원협회는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초부터 '2020년 찾아가는 수출지

원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는 내년 1월 13일 광주전남중기청을 시작으로 14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5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6일 전남동부사무소 순으로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수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참여기업들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 수혜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출유망 핵심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우수 수출유망기업을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선정하고 연계 지원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핵심기업 5000개사 육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대 배정할 예정이다.

김민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수출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지원기관 간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업 모델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세관 김금례 주무관, 한국무역협회 최옥림 과장,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 서인호 씨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차별화된 킬러메뉴가 필요한 시대

지속되는 불경기의 여파는 소비둔화와 매출하락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생존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특히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난립으로 인해 유난히 생존경쟁이 치열한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특히 다들 비슷비슷한 메뉴와 가격대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고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킬러메뉴의 보유 여부가 성업과 폐업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다.

왜 킬러메뉴는 외식업계에서 경쟁과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아닌 필수요소로 변해가고 있을까?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고객들은 지갑을 닫고 외식의 횡수를 대폭 줄인다. 줄어든 횡수만큼 더 좋은 메뉴를 먹으려는 보상심리가 작동하며 특히 누가 정했는지도 모를 맛집이라는 타이틀이 흔한 세상에서 일반적인 맛집 보다는 좀 더 이색적이고 만족도 높은 메뉴를 갖춘 맛집을 찾는 고객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거기에 모임이나 단체 중심의 외식문화의 구조상 일행 중 누군가 한명이 먼저 예약을 하고 나머지 일행이 동행하는 개념인지라 예약자 입장에서는 일행들에게 조금 더 새롭고 창의적인 킬러메뉴를 보유한 외식업소를 노력해서 찾았다는 느낌도 주고 싶어 한다. 그렇게 알게 된 메뉴나 외식업소를 SNS를 통해 소개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는 것도 킬러메뉴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킬러메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 집의 대표메뉴'를 말한다.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그만큼 킬러메뉴는 맛이나 구성에서 독창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세상에 없는 완벽하게 창의적인 킬러메뉴의 개발이 쉽지 않기에 식재료나 메뉴의 혼합을 통한 제3의 이색적인 맛을 창출하는 콘셉트의 퓨전형 킬러메뉴와 식재료나 메뉴가 각각의 고유적인 맛을 유지하되 하나의 메뉴로 구성되는 콘셉트의 하이브리드형 킬러메뉴가 대세를 이룬다. 개발 난이도는 당연히 전자 보다는 후자가 더 어렵다. 그 결과 일반적인 외식업소에서는 퓨전형 킬러메뉴의 개발 보다는 하이브리드형 킬러메뉴의 개발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킬러메뉴는 점심과 저녁 시간대 중 어느 시간대에 배치해야 할까? 이는 외식업종이나 상권과 입지, 경쟁업소의 메뉴구성, 고객층에 따라 다소의 변수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점심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모두에 킬러메뉴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한 시간대에만 킬러메뉴를 배치하면 킬러메뉴가 배치되지 않은 시간대에는 고객의 유입량이 적어서 매출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요즘 외식업소는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려야 장기적인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개의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제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의 업그레이드형 제품과 향후 잘 팔릴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도 상시 병행한다는 사실을 참고해 외식업소에서도 기존 킬러메뉴의 업그레이드형 메뉴개발과 새로운 킬러메뉴의 개발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고객들의 입소문이 100가지 마케팅 보다 더 강력한 모객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객들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메뉴나 맛을 경험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킬러메뉴의 개발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보길 바란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동강대 BI센터 입주업체 中 수출 분말식초 제품 출시

동강대 창업보육(BI)센터가 진행하는 '입주업체 보육역량강화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 24일 동강대는 BI센터 입주업체인 현대에프엔비㈜와 '디자인하늘'이 협력해 중국 수출용 분말식초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보육역량강화'는 전문가 네트워크와 트렌드 분석, 시장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에프엔비㈜는 건강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 2년차인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분말로 된 식초 600만원 어치를 중국에 첫 수출했다. 박승만 현대에프엔비㈜ 대표는 최근 (사)벤처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벤처 어워드'에서 중기부장관상을 받았다.

디자인하늘은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패키지 아이템으로 창업했다. 최홍기 디자인하늘 대표는 "기업 운영에 있어 디자인은 제품의 품질만큼이나 중요하다"며 "하루 3~4개 기업 관계자를 만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바리스타 어렵지 않아요" 호남대학교가 지역민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바리스타 2급자격 취득반' 참가자 36명 전원이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 이달 11일까지 두 달 동안 열린 김영근 외식조리과학과 교수 강좌에 참가한 주민들 모습. <호남대 제공>

청년 창업농 예산 600억 추가...1600명 농업 인재 키운다

정부, 후계농자금 3750억 확정 최대 3년 월 100만원 지원금도

정부가 내년 영농창업 자금 규모를 600억 원 늘리고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도입 3년차를 맞아 영농창업 자금(후계농자금) 예산을 600억원 추가된 375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농창업 자금은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청년창업농에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1인당 3억원 한도로 2%의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만 18~40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 '영농정착지원사업'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1년에 2개월 관할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의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내년 1월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7일까지는 '2020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0년 1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대상을 비농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300명 늘린 800명으로 정했다. 장학생 1명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며, 총 지원 규모는 36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의 70%가 비농업계 졸업생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